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김이경
편집인 이경희
주필 최원일
외대학보(995-7048, 961-4152)
외대신문사(962-7128, 961-415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학원리 1389
인쇄인 김영수

568호 1991년 5월28일(화)
제3종 우편물(7)급인가 (주간)

THE OE DAE HAGBO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 2453호

비약 위한 휴식... 이제 다시 전면전으로

○... 한달 사이에 11명의 목숨이 죽어갔다. 전대학동 학생운동
○...의 선봉적인 투쟁과 노동자계급의 자기 조직을 통한 조직적
○...인 정치투쟁, 급속히 확대·강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운동
○...운동전열에 5월투쟁은 87년 6월형성 초기극권을 능가하는
○... 많은 성과를 안겨주었다.
○... 그러나 5월18일 제2차 국민대회 이후 투쟁극선이 하향하고
○...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은 운동전열을 하여금 스스로를 지쳐
○...게 만들었고 일정기간 휴지기할 경로를 택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5월투쟁의 성과로 제2의 6월 진면형으로 돌아
○...가야한다는 인식 공유속에 5월투쟁에 대한 정리와 이후 과제
○...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본보 부장단에서는 이를
○... 다음과 같이 세 기점으로 나누어 집중 취재·분석해 보았다.
(편집자주)

5월투쟁의 한계에서 비롯된 운동전열의 과제

법국민 대회 회의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기간의 5월 투쟁이 강경대 열사 장례식과 2차 국민대회가 있는 5월18일을 기점으로 6월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상승세를 걷고 있는데 비해, 그것을 절로써 투쟁의 대안을 마련해야하는 대회회의의 행보가 더디다.

이제는 그간 정권과의 대립 국면이 노조용 총리 사퇴 이후 정치적인 판도가 광역의회 선거로 모아지면서 실질적으로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현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면 대략 네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싸움의 장외에서 비롯된 문제. 대중 간부들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거리를 나오는 대중들의 분노를 조직화시키는데 못맛한 싸움을 전진시키지 못하는 5월 투쟁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아직까지 연석회의제 수준으로 그치고 있는 대회회의가 조직 및 당시의 조직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기인하는 문제. 구체적으로 다양한 실질 투쟁을 내걸지 못하고 회의의 한달 동안 대가

모 가두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5-18을 기점으로 노동운동과 조직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실질 투쟁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부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기간의 정치적 쟁점들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선제해 내지 못해 정치적 쟁점들이 애매모호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단지 대중들은 참가이외의 의미들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조용 총리 사퇴 이후에 정치적인 전반적이 분위기가 광역의회 선거로 모아지면서 대회회의의 조직력이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중대중운동의 조직적인 관용성과 투쟁의 구성으로서 대회회의의 위상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그 해결의 실마리

투쟁의 한가지로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광역의회선거 대응 논의
광역의회선거를 둘러싸고 이번 선거를 그간 고강력 대응투쟁을 하나로 묶어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공유한 상태에서 대회회의는 논의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현재 대회회의의 임장은 참가와 거부에서 비롯되는 몇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불분명한 상태이다. 거부를 볼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요약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선거 참여를 목표로 하는 야당과 지난 기초의회 선거 당시 일장기도 성과를 얻었던 전교조를 어떻게 얼마만큼 지속시키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이 시기에 선거의 참가, 거부를 따지보다는 참가시킬 수 있는 합법적 공간에서의 대중전선의 수행, 또 불참시 선거기부를 전진국면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정치와 가두투쟁의 수행등의 각 상황에 맞는 전술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대책회의의 진로
지금 투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는 이후 투쟁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가 된다.
지금의 시기는 '92-93년 권력재편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시기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기'라는데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이후 계기로 대외적 대안 마련은 분별론이다. 그것은 '입시정부', '과도정부', '민중권력쟁취' 등으로, 이것은 내부대중 민중들의 분노를 결집해 내고 이르기 위한 정치적 목표이지만 현실에 대한 주된 판단에 기초함으로써, 합의관계 설정에 지극히 큰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근거의 취약성과 함께 이들이 제시한 대안적력 역시 아직 그 근거가 이를 준비하기 위한 투쟁의 경로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와함께 대회회의가 단지 '노태우정권 피진'만을 주장함으로써 해서 이후 지도구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지난 25일 대회회의가 '공안분지 분쇄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법국민 대회회의'로 개편됨에 따라 단지 '노태우정권 피진'과 이후투쟁을 위한 지도구상으로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이 두 가지의 구상을 하나로 통합하여 따라 나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각부단단체의 결속으로 대회회의의 조직을 강화하여 노경권진 투쟁을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전개해야 한다. (김인숙기자)

이완된 집행력 쇠신, 지역조직과 연대의 질 높여야 선거 참여 여부, 상황에 맞는 전술 수립이 관건

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 이완된 집행력 쇠신이다. 이는 각계각층의 부분단체들이 뚜렷한 자기목표를 뉘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키워내고, 각자의 대회회의의 지속적 영향을 통해 지역조직과의 관련성을 함께 높여 나가는 것 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국 현재 집중성과 사안에 대한 집중성을 잃어가고 있는 대회회의의 조직강도를 지역과 부분단체들의 고강력 역량을 채워 나가는 계기로 대법국면이 행정성, 민족화 운동의 진화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안노태우정권'을 부분별, 지역별 상황과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투쟁을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전개시키기 위한 실천

비하지 않을 까하는 우려이다. 두번째 문제는 이번 선거의 참가가 가져올 수 있는 국민들의 힘의 분산 현상이다. 이는 먼저 지역한 대회회의의 힘의 미약으로 표출될 수 밖에 없는 후보단일화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간 모순이 있었던 대중들의 결집된 힘이 자기 다른 곳으로 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 차이로 대회회의는 참가 거부의 확실한 입장 표명보다는 일관된 대회회의가 정부측에 제시한 공안분지 분쇄, 백관단체제 4개항이 '관원'에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이해한' 입장이다.

한편 전대학은 광역의회선거에 대하여 대회회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계 속에서 유리는 과연 광역의회선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며, 그것은 대회회의를 조직, 강화시켜야만 가능하리라 본다.
우선 대회회의를 상설적 투쟁기구로 정착시키는 문제가 제기되며, 연석회의의 성격에서 벗어나 연합체로의 개편이 요구되지만 아직 연한 체제로까지 나아가기에는 조차내부의 사상분열과 집행부의 지도력이 강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저들의 투쟁은 당장 정권을 구성하지는 것이 아닌 대체세력 형성의 과제'로서 대안적인 구조를 위해 한단계 한단계 확실히 싸워나갈 필요가 있다.

(김규경, 정성열, 주재영 기자)

사설

참교육 탄압한 정권식은 안된다

—전교조 결성 2돌을 맞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결성 2돌을 맞아 전교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정권식의 탄압을 정면으로 거부한다.
민족민주-인간의 교육을 표방하며 결성된 전교조를 민주와 자유를 표방하는 정부 여당이 탄압해 왔음을 개탄하면서 정부가 원하는 바대로 전교조를 묵살하고 1천5백여명의 교사를 소신있게 교단에서 내몰은 강박된 정권식의 총리사퇴는 지금까지의 행정각국정을 총괄하는 중재, 총리 지체가 없음을 바란다. 임시위원회의 교육과 식민주의독재에 순응토록 하는 교육, 복합을 적으로 알리는 반민중 교육을 고지교고 했고 이에 전교조를 결성하고 교육법개정과 교육환경개선을 주장한 수많은 교사들에게 전교조 부장단 정권식의 총리사퇴는 단순 논리를 적용하여 '탈갱이'라는 표현을 쇠었다.

그러한 사람이 어느새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지만, 2돌을 맞이한 전교조는 이제 스스로 서서, 야당처럼 절름마를 시작한다.
지난 25일(일) 연세대학교 열린 '2주기 기념대회'에 참가한 1만5천여명의 교사들은 출발 교단을 뒤로두고 전교조로 합류해 왔던 교사가 참어, 그 정권식의 잔인함을 증명했다.
이제는 단단 공중의 삶을 떨친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현실을 바꾸고 분노의 투쟁을 벌이기를 외치는 현정권의 균형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교단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이들의 해방은 웃음과 국민이 참주인이 되는 세태를 2년전보다 더 갈망하면서 말미암은 것이다.
전교조가 합법성을 호소하는 것은 제자들이 죽어 나차해지는 것을 분노하여 수백, 수천의 교수들이 시국선언과 농성을 벌인 것과 다르지않고, 자의 아들, 딸 동생들의 죽음을 보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자의와 친히 다르지 않다.

올바른 정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주장하여도 모자람, 전교조의 합법성을 거부로 외친 소신과 정권식의 총리사퇴 '쇠피'로노조로 전교조의 다름이 없다. 40만 교사와 4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정권식의 총리사퇴를 감히 가르치지 마라.
해방한 지식과 올바른 소신, 대화를 중시하는 학자 정신으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총리직을 즉각 그만두라.
이제는 참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학부파, 전교조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태우 정권 만능이나 망신을 거부한다.

민중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5월은 정면 이렇게 가는가.
지난 25일은 고(故)강경대 열사가 죽은 지 만 한달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이날 있었던 '폭력적인 민중파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제2차국민대회에서 성균관대학교 불문학부 88학번 김기정 학우가 사복체포조직원 동원한 경찰의 '공격형, 강경진압'에 의해 '질식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권이 이 사건에 대해 할말은 이미 어느정도 예상대로 착각 진행되고 있다.

제도연론은 시위대에 의해 '입시'당한 것으로 사건을 이미 축소 해석하고 있고 경찰은 부활을 요청하고 있다.
우선 주위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백관(사복 체포조)이 시위, 학생들을 둘러싼 과정에서 최루탄을 무차별하게 쏘았고 쓰러진 사람들이 일어나려고 할때 곤봉과 망치로 공격했다고 한다. 또한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권진압과 학생들의 외침이 없다는 점에서 '입사'가 아니라 '취부'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우연에도 불구하고 조진일보는 방위와 '잠복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로 규정하고 시위대의 '압박'을 행동을 부각시켰다.

전국 여론은 김기정학우의 유서 파문을 일으켜 일시적 수요한 죽음을 떠들고 싶지 않던 호민관 우습지도 않은 '외국'을 연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폭력성을 '강경진압'에 의한 '당연한' 결과인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제도연론과 경찰이 발버둥 친대에도 이제 4천만 민중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이미 그들의 '반민중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제2의 6월항쟁'으로 명명되는 '역사적 전환기'에 이제 '집 없이' 남겨진 제도연론과 경찰은 이제 노정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민중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공 고

제목: '91년도 신입생 등록금 차액 환불

1991년도 신입생 등록금 차액을 다음과 같이 환불하니 기일내에 수령하기 바람.

1. 환불대상: 제1학년 신입생
2. 환불기간: 1991. 5. 29(수) ~ 1991. 5. 30(목)
3. 환불금액: 인문계 22,700원
자연계 24,500원
4. 환불장소: 서울캠퍼스-삼일은행 이문동지점
용인캠퍼스-용인학생회관102호
(구내세무국일)
5. 준비물: 학생증, 도장
6. 단, 원호대상자와 외대교직원 직계자녀는 제외

1991. 5. 27

한국외국어대학교 재무처장

재학생과정 모집요강

1. 모집학과 및 인원	
학과	인원
과정	인원
초급반	25명
중급반	25명
고급반	25명
초급반	25명
중급반	25명
고급반	25명

2. 교육일정
 - 1) 기간: 1991. 8. 5(월) ~ 1991. 10. 11(금) (10주)
 - 2) 교육시간: 1일 3시간 (18:30 ~ 21:20)
 - 3) 주수업일수: 5일 (월요일 ~ 금요일)
3. 지원자격: 본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지방학과 외국어 비전공자(특히 영어·인어 부전공자 및 제2외국어 이수자 포함)
4. 선발방법: 등록순수합

5. 제출서류: 등록원서 및 사진 1매
6. 원서교부·접수: 1991. 6. 3(월) ~ 1991. 6. 21 (금) 외국어연수원 교학과
7. 수강료: 135,000원 일시납
8. 등록장소: 외국어연수원 교학과
9. 기타:
 - 1) 본 교육은 학부 재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으로서 4회 실시하며, 호응도에 따라 모집학파의 조정이 가능함.
 - 2) 교과는 등록마감후 우편안내에 따라 개별 구 입재.

문의전화: 외국어연수원 교학과, 961-4174, 4175
1991년 6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연수원

「6월항쟁계승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고전음악동아리 연합연주회,준비상황취재」

고전악기 음률에 담긴 투쟁의 의지



「역사의 부름앞에 부끄러움 자 되어 조국을 통질 수 없이 나로부터 가노라. 풀한포기 하나도 자유로울 수없는 식민의 땅 아들이아서 얼이 나기라. 붉은 태양 떠서라 깃발이 서면 탄압의 총소리 나를 부르는 함성, 나시지라 투쟁의 한길로 산산히 부서지거라 그대라 이 내내용도 투쟁의 한길로.」

고(故)강경대 열사의 가장 잘 알려진 민중가요인 「투쟁의 한길로」이 노래가 고전기타와 첼로, 바이올린등의 앙상블과 대금, 거문고, 아쟁등의 국악기 연주된다.

회해 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문화부장 백경선(상경·경제4)군은 「고전음악 동아리의 이러한 행사에 대한 도움 요청이 들어왔음에 참으로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

대관계에서 발전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연주회 준비 과정에도 문화선봉대 노래패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한편 연주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고전기타반,회장 최유준(시상·독

고전음악 동아리의 조직적 결합 토대

습니다. 학내 문제대리 및 모임들이 스스로의 위상과 역할을 찾기 위한 몸짓의 하나라고 보았을 때 모범적인 선례로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이번 연주회는 한 동아리의 연주자 아닌 「고전음악,연주 동아리들의 「창조별 연합,공연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그간 이 동아리들의 활동이 개별활동 중심이었다는 점을 볼때 「창조별 연합」 노래패 연합,등을 주축으로 6개의 장르로 나누어진 「장르별 연합」의 특이 더욱 넓어지고 내용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전음악문화예술운동연합」의 전방을 밝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주회를 통해 그동안 「순수음악」과 「민중가요」의 「단순한 구별」으로 많은 교류가 없었던 동아리들이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의 창작욕구를 자극하고 싶은 연

인(3)군은 「먼저 제부에서는 각 동아리들이 스스로의 부흥을 실현할수 있는 고전음악을 연주하게 되고 제2부에서는 「목요음악반,과 「일소리」, 「실내악반,과 「고전기타반」이 짝을 이뤄 연주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부 동아리들이 함께 「그날이 오면,과 투쟁의 한길로,를 연주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한다.

이번 「고전음악 동아리 연합 연주회」가 분별 현재 문화선봉대 활동을 통해 체계를 잡고 일어서려는 학내 문화에 신선한 충격을 줄것에 확실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행사가 자체내의 의견에서 도 보여지듯이 일시적인 모임이 아닌 행의 행과 내용으로 계속 이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

(문화부)

사랑으로 세워가는 참교육문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화국을 찾아」



5월26일(일) 연세대에서 열린 전국교사대회중 전교조 문화국 교사들이 노래공연을 하고 있다

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건설을 둘러싼 그 눈물겨운 아픔의 여름이 있었는지 2년이 흘렀다. 교사들은 이로 인해 교단에서 쫓겨나고 학생들과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만 했다. 수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면서까지 끝까지 지켜나오자 했던 전교조가 오늘(28일)로 창립2주년을 맞는다.

제자들의 이별에 대한 슬픔을 견디며, 현 교육문화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애쓰는, 12명의 해괴교사들로 구성된 전교조 문화국을 찾아 보았다.

26일(일)에 있을 전국교사대회를 앞두고 문화선전준비로 바쁜 중에도 「학생들은 모두 우리 제자같이 반갑지만 그렇다고 말하며 반갑게 맞는 교사들의 모습에서 두근 두근 마음을 그리워하는 해괴교사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다.

전교조 문화국은 전교조의 정책을 「문예,라는 매체를 통해 전진해 내는 일과 함께, 올바른 교육문화를 창조하고 학교교육현장에 그 대안을 제시한다는 두 가지의 큰 임무를 지고 있다. 2년 동안 각종 행사와 기획과 준비, 참여를 비롯해 출판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각 지방-지회의 중심으로서 노조의 원만한 문화선전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교육내 문화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모임이었던 「교육문화연구회」가 전교조가 결성되기에 있었는데 이것이 전교조 문화국의 전신(前身)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며 한송희(문화국 국원) 해괴교사는 전교조 문화국이 생겨난 배경을 말해준다.

현재는 기획,연구팀이 있으며 음악,미술,연희분과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배준비위원회」에서 교사문화패를 결성하기위해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체계공인 중에서는 볼 수 있었던 교사문화패는 사실상 「패」가 아니라 각 「패」체 분과,였던 것이다.

20년동안 전교조 문화국은 많은 사업들을 진행시켜왔다. 89년 5월 연세대에서는 큰 호응을 얻었던 집체극공연 「참교육의 함성으로,를 시작으로, 90년 전교조 1주년 기념공연 「참교육의 그날까지,」 최근의 「생생님, 우리 선생님들,을 모두 기획하고 각 분과에서 직접 출연도 했다. 이외에도 소규모공연과 초청공연이 수없이

많은데 「89년 강제해직 이후, 9월경에는 거의 이별에 한민적 각 대학마다 초청공연이 있어 정신없이 바빠진 무척 큰 보람을 느꼈다.」라는 당시를 떠올린다.

공연뿐만 아니라 노래음악반과 노래패를 출판하고, 놀이비디오테이프를 제작 보급하는 일도 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한 「특별활동지침서,를 발간하고 각종 자료집을 펴내는 것도 전교조 문화국의 큰 사업이다. 한편, 방학기간에는 서구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여름-기타-반학 강습회를 열고, 여름을 계획하기도 한다.

「전진과 비호적 전국적인 논의 체계를 갖게 된 건 변모이자 발전에 할 수 있지만, 다양한 활동에 비해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한송희 교사는 말한다. 그래서 현재 문화국은 노조

문화선전을 담당하는 조직과 교육문화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분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제 전교조 문화국은 조직정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큰 관심을 갖지 못 하는 시에 진행되었던 많은 일들이 이제 좀 더 학생들 가까이에서, 진정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전교조 문화국의 발전(象)일 것이다.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획이 부족하여 이들과 함께 작업할 때가 정말 많았다고 말하는 교사들의 말에서 실을 수 있듯이, 전교조가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다시 교단에서 아이들의 해방은 무엇을 대하는 것이 「힘들 중도 모르고 말한다.」는 이분들의 가장 큰 비애임을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황효순기자)



“현 시국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6월항쟁 계승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고전음악 동아리 연합연주회」 총연출자인 「고전기타반,회장 최유준(시상·독일어3)군을 만나

리에서 충분히 받아들여 연주회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라며 연주회를 준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한다.

리는 이 연주회의 임장전 판매 수익금은 모두 「삼각대학회」에 전달될 계획이라고 한다.

고(故)강경대 열사의 죽음이후 거세게 타오른 5월투쟁의 불길은 6월로 접어들어 이 시기에 학내에서 보기드문 호탕한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강경대 열사의 죽음이후 계속되는 투쟁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라는 고민에서 회의 「고전기타반,훈자만 하는 것이 아닌 고전음악, 동아리인 다른 동아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악 동아리 「일소리」와 「실내악반,」목요음악반,에 제의를 했고 세 동아

리에서 충분히 받아들여 연주회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라며 연주회를 준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한다.

「이에 대해 최군은 「이후 연주회의 평가속에서 고전음악 동아리들이 지속적인 모임을 갖자는 제안이 「실내악반,회장이 하였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들의 쓰임새 (206) 만수밭이

「임장이 큰 아내보다 장남스런 채수를 가진 최씨는 원래 어린 양에서 그 아내에게 보좌를 잘하려고, 친필하린 만수밭이를 하며 당시 선인이 무덤인 아내의 속을 썩인다는 것이었다.」(김주영의 「배우서기,에서)

올해 8월 8일, 우리 설악에서 세계 청소년들의 힘찬 축제 17회 세계잼버리가 열립니다.

120개국 2만여 청소년들이 모이는 지구촌 보이스카우트들의 아열축제

17회 세계잼버리가 올해 8월8일부터 8월 16일까지 우리나라 설악에서 열립니다. 지구촌의 청소년들이 국경, 언어,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 자연에서의 야영과 과정활동을 통해 폭넓은 우정을 나누는 축제-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이번 17회 세계잼버리는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항가리,세코,소련등 동구권이 대거 참여하여 동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념의 장벽을 넘어 하나라는 의미깊은 행사가기도 합니다.

우리 소년들이 이루어 갑니다. 다가올 21세기의 '세계는 하나'

17회 세계잼버리의 테마는 '세계는 하나' - 10대 세계의 만나 폭넓은 우정을 나누고 자연속에서 절음의 힘찬 패기를 걸리는 지구촌의 보이스카우트들은 21세기의 세계 곳곳에서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큰 몫을 하는 주인공으로 자랄 것입니다. 21세기의 하나된 세계를 약속하는 자리 - 17회 세계잼버리에 여러분야의 드디어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주최: '91 세계잼버리 공인연맹

쌍용 조흥은행

“침묵하는 교사아닌, 실천하는 투사로”



▲지난 26일(일)연세대 노년관에서 열린 「공안통치 종식과 교육자지실현 및 전교조 합법성 쟁취를 위한 창립2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에서 현·해직교사 1만2천여명이 전교조 합법성 쟁취와 학교교육 정취를 결의하고 있다. (사진:강인숙기자)

교육의 주민주체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대육이 교사에게는 현행법상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나, 그렇게 된다면 교육위원회의 성격이 독립적인 아닌 위임형의 성격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부경결의문에서 스승교육자의 핵심인 학교자치의 실현을 위해 「학교자치 실천투쟁을 조직하고 할 것」 실현을 교육자치법, 교원직위법, 교원노동법 등 제반교육법규를 철폐하고 교사들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해직교사 원직복직과 전교조 합법성쟁취를 위해 부경결의 △반민족·반민주 교육의 주범, 사랑하는 제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은 노조권리진퇴반민주정부수립을 위해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할 것을 채택하였다.

전교조는 2년후의 사업을 평가하면서, 한국교육계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한

시대주의 광범한 참여의 미흡과 근본의 교육문제에 대해 질 것 해직 교사의 생활과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교육의 새지평을 열어나갈 전교조의 91년 부경결의문으로서는 △지역별 교육여건 개선투쟁 △올 하반기에 교사들의 노동권 보장과 합법성 쟁취를 위한 대대적 투쟁 전개 △지역별 교사 생활 개선 투쟁 △교육주체(교사·학생·학부모)에 의한 지역거점 중심의 원만한 교육자치 실현 △참교육 실현을 위한 반민주적 지지와 주체적 해결 방안 제시 △정치·사회민주화를 위한 민주단체와의 연대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계속적이고 강도 높은 탄압으로 합법성쟁취 여부가 불투명하여 전교조 활동의 대중의 확산에는 제약이 따른다 할지라도, 참교육의 실천과 교사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활동이 당국의 합법성인정여부의 판명이 이 공개적으로 나타난다.

이날 교사대회 도중, 「우리의 제자를 죽이는 거대한 반민주적 앞세로서는 「투사가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이영희 전교조 수석위원장의 말과 「경대, 새용이, 영권, 사회의 죽음같은 우리교사들은 「투쟁」이라고 대답한다.」라며 외친 강경투쟁 현안교사들의 의견은 전교조 2주년을 맞이한 전국 40만 교사들의 대동단결을 호소하고 있다. (사회부)

정치활동, 노조 합법성 쟁취위해 투쟁할때 교육장악음모 교육주체 총단결로 분쇄해야

지난 89년 5월28일 「교사들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민주·민주·인간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창립 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교조 결성 이후, 정부당국은 억압적 강압을 찾아 보지 않는 우리에 대해 공격적으로 전국 1만5천여명의 교사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97명의 교사를 구속시키는 등의 강경한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가운데, 전교조는 그간 교육개혁운동, 사립학교법 개정 무효화 및 재계정부쟁취를 위한 제반투쟁을 통한 교육개혁을 위한 연구활동등의 「참교육실현을 위한 활동」을 폭넓게 벌여왔다. 또한 각종 폭력·출판활동, 연대대신으로 진행하면서, 현재는 조합원 1만4천여명, 교사 후援회 3만여명의 방대한 조직으로 강화·발전해 왔다.

이에 지난 26일 연세대 노년관에서 열린 「공안통치 종식과 교육자지실현 및 전교조 합법성 쟁취를 위한 창립 2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는 전교조와 현·해직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전교조 사수주의 결의를 도

아낸다는 의미에서 뜻 깊은 자리라 되었다.

이날 당국의 침묵불허 방침과 우월 관계등의 악조건에서도 전국 16개 시도 정부와 그 산하 1만17개 시도 조합원 1만2천여명과 고등학생, 전교사비대생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당초 여의도광장에서 연대대신 장소로 옮긴 뒤 대회를 진행했다.

윤영규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로써 「우리의 지난 2년은 1천명여 동지들 거리로 내몰았던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면서, 부경결의문 전교조는 조적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결연한 투쟁으로 40만교육자의 대변자로 우뚝선 승리의 2년이기도했다고 창립 2주년의 감회를 되새겼다.

한편, 전교조 전(前)인원전 부경 상임준비위원 노태봉부경 부위원으로 임명된 전(前)교무장관이 임명된 것과 관련 「1천5백여 교사들 해직, 1백여 교사를 구속시킨 것도 노태봉, 3당합당의 정당성을 가르치고 강요했던 정세는 결코 부경리가 아니라서 안된다.」라며 「공안통치 종식을 주도한 노태봉 내각을 사퇴시키고 정세법 총리에게 임명된 것은 「불난집에 비단걸듯, 한 격」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또한 지난 2월 임시국회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서울지역 현직교사 임병호(마포구 성서중학교·특수교육담당)씨를 만나.

“사회·교육 민주화위해 현장교사 나서야 할 때”

교수·중요인·예술인 등 수많은 지식인들이 「공안통치 종식과 노조수립을 위한 투쟁」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8일 서울경북지의 원정교사 1천5백여명은 「내각총사퇴 및 해직자 처분, 백골단 해체와 경찰중립화·민주개혁헌법, 등을 요구하며 「1차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시국선언 발표에 대한 정계처리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전국 12개 시도 교사들이 15일, 「1차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지지 및 시국선언

탄압중지를 요구하며 동조시국선언을 발표함과 아울러 25일 정기회의 2905명의 회가 시국선언을 해, 전국적으로 총 538만여명의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으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앞으로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연세대에서 열린 「공안통치종식과 교육자지실현 및 전교조 합법성쟁취를 위한 창립2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한 시국선언 현직교사 임병호씨를 만나 보았다.

▲시국선언을 하게 된 계기는

—이반 강경대결의 죽음과 박승희·김영관·전세용군 등 「참교육 1세대」들의 분신사건을 말한다. 시국선언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현정에게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려 한다. 더군다나 교육민주화가 사회민주화의 선봉이어야 한다는 신념에 시국선언을 하게 되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경연교원직위법의 주요내용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교원직위의 주요요소는

—한교당국에서는 시국선언의 확산을 막아보고 경위서와 철회서지를 쓰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우리의 주장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학내에서는 학생들에게 생활준비를 해주는 시국선언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두 번 진행된 국민대회에 많은 현장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 현직교사들은 「전교조 합법성 쟁취,와 해직교사들의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전교조 합법성 쟁취를 위해 정부측에 요구하고 싶은 것과 구제의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구제는 합법성쟁취가 요구되면 바가 되겠다. 「현안」을 알고 전회교사의 70%가 넘는 100만여명의 목소리를 접하게 수혜자가 될 것이다.

185명여 해직교사들의 전원복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우리들의 의견을 듣고 전교조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희용 기자)

1년간 지속되는 영어연수?

“같은 비용으로 해외연수와 1년간 영어교육프로그램을 동시에”

해외어학연수는 더욱더 큰 영어공부애의 의무를 띠고어 준다. 그러나 그 열기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칫 추억으로만 남기 쉬운 30일간의 연수 - 추억이 아닌 자기만의 재산으로 만드십시오. 엘림이 30일간의 열기를 365일 언젠가 드립니다.

신항미간: 1991년 6월 5일까지 각 대학별로 제한된 인원을 선발하므로 마감일 전에도 신속한 접수 마감될수 있음

신청방법: 본인 소정영역의 참가신청서

미국 대학 영어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Evergreen State College. Florida International Univ. California State Univ. Long Island Un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스앤젤레스 스펙트럼스쿨 로스앤젤레스 (그랜드 캐년) 워싱턴 D.C 버클로 (나이아가라 폭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욕 시애틀 행주버 하와이
--	---	---

명승지문화여행

지금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549-3411 ~ 3

UNI-ELIM CLUB 회원 특전

UNI-ELIM CLUB이란 연수후, 1년간 정규교육프로그램과 영어습득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Activity(외국인과의 meeting, 세미나, party, game, 등산, 레크레이션...)를 통해 문법, 독해, 어휘, 청취 및 회화등 영어에 관한 모든것을 즐겁고 자연스럽게 마스터 할 수 있는 독특한 회원제입니다.

회원들은 본회의 거주별 회원제(학급제, 각종정보, 교양등의 내용)를 무료 구독하게 되며, 휴학, 취직, 아르바이트, 정보제공 및 상담, LOUNGE, LAB실 자유이용, Shuttle bus행동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 - 18 로얄빌딩 4층

